



## 제 44회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식개선 안내

2024년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입니다.

학부모님께서서는 혹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을 만났을 때,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훌쩍훌쩍 겹눈질 하거나 머뭇거린 경험이 있으신가요?

잘 몰라서 혹은 낯설어서 무심코 했던 나의 작은 행동들이 상대방에게는 불편함이나 속상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장애인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생활에서 알아두어야 할 에티켓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.

### ■ 그 사람의 “이름”을 불러주세요.

: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올바른 용어는 ‘장애인’이 맞습니다.

하지만, ‘장애인’이란 용어는 호칭은 아닙니다. 우리가 다른 사람을 ‘사람아’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듯이, 가장 좋은 호칭은 그 사람의 “이름”을 묻고 불러주는 것입니다.

### ■ 장애인을 보고 주춤하거나 유심히 바라보지 않습니다.

: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똑같이 자연스럽게 대해 주세요. 웃으며 반갑게 인사하는 것은 좋지만 장애인을 불쌍하게 생각하거나, 나의 호기심을 위해 무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.

### ■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 표현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.

: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장애인만은 아닐 것입니다.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라도 모욕감을 주고 비하하는 발언과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.



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듯 존중과 배려가 모이면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.

점점 다양해지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에게 편견과 차별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줄 때 느끼는 기쁨과 행복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학교와 더불어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.

2024. 4. 16.

전주서문초등학교장